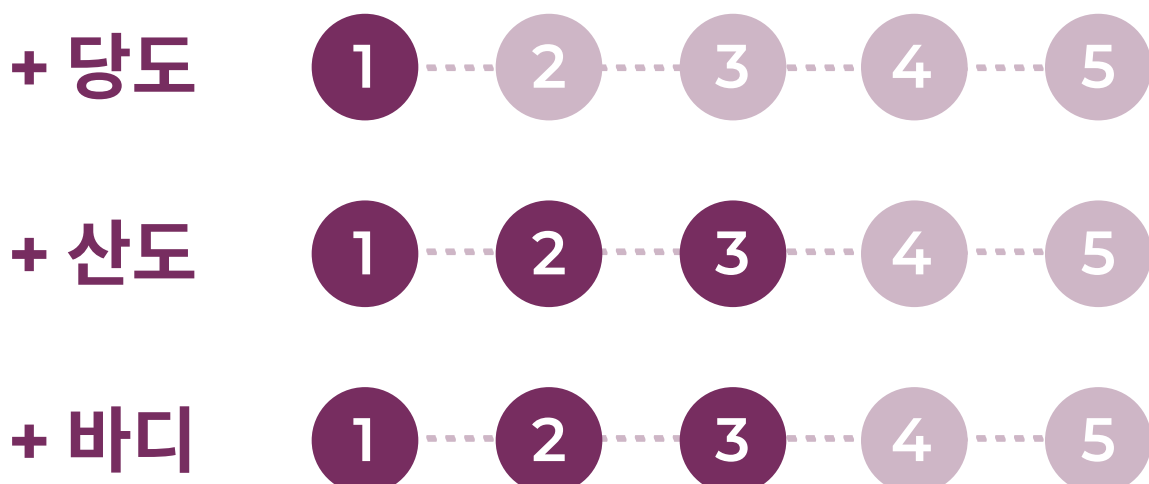




Cono Sur 1551 Chardonnay

# 코노수르 1551 샤르도네

와인과 미식을 즐기는 애호가를  
위해 탄생한 부드럽고 은은한  
스타일의 와인

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ype             | 화이트 와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ountry / Winery | 칠레 > 센트럴 밸리 / 코노수르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rape Variety    | 샤르도네 85%, 블렌딩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apacity         | 750m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ood Matching    | 크림소스 파스타, 담백한 스타일의 피자, 신선한 해산물요리, 각종 치즈, 치킨 |

## Information

밝은 노랑색을 띠고 있으며 사과, 파파야, 시트러스의 신선하고 풍부한 향과 살짝 버터리한 여운, 경쾌한 산미가 매력적인 화이트 와인이다. 숙성 없이 바로 영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잘 어울린다.

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란 샤르도네로 만들었으며 반은 손수확, 반은 기계로 수확한다. 발효 후 2개월 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해 출시한다.

**Tip** | 1551년은 스페인 선교사들이 양조용 포도 Vitis Vinifera를 칠레에 처음 들여온 해이다. 레스토랑, 비스트로 등에서 와인과 함께 미식을 즐기는 애호가를 위해 탄생한 이 브랜드는 신대륙 와인 생산국 중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칠레 와인에 대한 헌사의 의미를 지녔다. 부드럽고 프루티한 맛을 강조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.